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9

‘꼬끼오’는 ‘高貴요’



닭. 재강 안태원 작. 동양화에서는 닭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장담을 그린다.

안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남방에서는 사찰내 공양간이 없고. 신도들이 공양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돼 있다. 신도가 스님들에게 카레치킨을 올리든, 발우에 돼지고기볶음, 소고기산적을 넣든 간에 스님은 조식·중식으로는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 때문에 닭고기는 남방스님들에게는 친숙한 음식이다.

닭은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처갓집에 처음 온 사위를 성대히 대접할 때는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 백숙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민화에서 봉황을 본 적 없는 서민들은 봉황을 그릴 때 닭처럼 그리고 장식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한다. 이렇게 닭과 인간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담마파다》라는 남방의 빨리경전인 《범구경》에는 이런 일화도 있다.

인도의 바라나시 어느 농가에 사는 암탉 한 마리가 매일같이 알을 낳았지만, 여주인이 매일 알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 먹는다. 암탉은 알을 품을 수 없어서 한을 품고 다음 생애 표범으로 태어난다. 암탉의 여주인은 다음 생애 사슴으로 태어났고, 암탉은 원한으로 사슴의 새끼들을 잡아 먹는다. 다시 환생한 암탉과 여주인은 귀신과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만난다.

귀신이 여인의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지 여인은 야기를 안고, 부처님의 회상에 뛰어들어 살려

동양화에 장담 그리는 이유는 지위와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한(韓)나라에 꼬리가 긴 세미계(細尾鷄)가 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우

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 이전부터 닭이 사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닭은 소와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친밀한 동물임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승가에는 재미있는 농담이 있다. 스님들이 먹는 육보(肉糎, 몸이 허약하거나 병환치료를 중 고기를 보약으로 먹는 경우)를 지칭할 때, 부월채(斧鉞菜)나 천리채(穿籬菜)라는 말을 쓰곤 한다.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월채라 한다. 부월채는 소, 돼지를 잡을 때, 도살장에서 도끼를 사용한 데서 나온 말이다. 거기에 재자(宰)를 붙여 나뭇잎처럼 부른다. 천리채는 닭이나 병아리들이 울타리를 뚫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지었음이 틀림없다.

기록에 의하면, 병고로 인해 오래전 입적한 한국 선불교의 중창자 경허(鏡虛) 스님은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 민가에서 만들어진 닭고기를 드셨다 한다.

경허 스님이 닭뺨을 던지면 고양이들이 받아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데 스님은 제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은 그러면

주기를 간청한다. 부처님은 귀신과 여인을 불러서 500생을 넘겨 원수로 살아온 둘의 전생을 이야기 해주면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음을 일깨워 둘의 은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동양화에서는 닭을 그릴 때, 대부분 장담을 그린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새벽을 알리는 장담의 우렁찬 ‘꼬끼오’ 소리는 예전의 시골에서 시계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장담을 그렸을까? 장담의 꼬끼오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고귀(高貴)요”라고 들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높은 지위, 부귀를 갖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을 장담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어느 정치가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가.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밝은 달을 바라보며 지새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향기 끝에는

약취가 나는 곳에 파리가 모여든다. 향기가 나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든다. 나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차 한 잔 깊이 우려 마시며 생각에 잠긴다. 내 삶의 표정은...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전시감상⑩ 조선 제월경현 선사(示月華道人)

진정한 인연을 바로 보는가

若人欲識道箇事 (약인욕식지개사) 動靜須參祖師關 (동정수참조사관) 不覺全身都放下 (불각전신도방하) 九脚雲散月當天 (구소운산월당천)

만약 그대(가)가 한 도리를 알고자 할진대 항상 조사의 관문을 참구해야 하나니. 몰란결에 온 몸이 내내리지게 되면 하늘 높이 구름 흩어지고 달 떠있으니.

조선 제월경현(壽月敬軒; 1544~1633) 스님은 15세에 출가해, 제방을 편력한 후 30세에 청허의 문하에서 조사선의 도리를 깨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스님에게 좌영장,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 등의 책임을 내렸지만 “만 리의 긴 강물도 나쁜 이름을 씻어가지 못한다”고 사양하고 묘향산·금강산 등으로 자취를 숨겼다. 그러나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학인들에 의해 큰 회상이 이뤄

졌다. 스님은 학인들을 제철함에 도서(都序)와 절요(節要)를 바탕으로 불법의 지견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선요(禪要)와 서장(書狀)으로 불법의 알음알이를 풀어 주었다. 또한 범문함에 있어 눈썹을 치켜뜨거나[揚眉] 눈을 깜박이거나[瞬目], 선상을 내려치거나[擊禪床] 불자를 들어 올리거나[擣拂子], 묵묵히 침묵하거나[良久] 방망이로 때리거나 크게 소리를 치는[榜喝] 등의 여섯 가지 방법[六段法語]를

즐거 사용했다. 화두참구와 그 체득된 경지를 읊은 위의 시에서 앞의 두 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주·좌·와·어·묵·동·정에 한결 같이 화두참구를 요구하는 선문의 수행법을 보였다. 제 3구는 ‘온 몸을 모두 내려놓으면’ 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사상(四相)에 집착하는 전도된 생각이 내려지게 되는 참구의 공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결국은 구름 걷힌 하늘에 달이 드러나는 이치가 곧 ‘한 도리’임을 보였다. 이 별스러울 것 없는 시구는 무미지미(無味之味)한 선시의 한 전형이기도 하며 스님의 방하작(放下)한 경지이기도 할 것이다.

내 앞에 그려진 자연과 못 소중한 인연들을 진정한 바로 보고 있는가? 나뭇잎에 햇살이 흔들리고 붉은 장미가 저녁놀을 물들인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Advertisement for 'Yerae-won' skin treatment.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ir 'Atope' and 'Eczema' treatmen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

Advertisement for 'Minsokjuk' (민속죽염). Promotes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food. Lists various products and prices, such as '9-ban Gukwon' and '2-ban Gukwon'. Includes a phone number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Nonghyungja' (농협용자) refrigerators. Features a photo of a refrigerator and text highlighting its energy efficiency and health benefi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Bosa.

Advertisement for 'Girisan' (지리산) wild boar and beef products. Features a photo of a pig and text describing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Namwon Seonwon-sa.